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반논문

사회적 자본과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민주주의

MYYD타운(문래·양평·영등포·당산 이야기) 사례연구

송경재
경희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인 〈문래·양평·영등포·당산 이야기(미드타운 스토리, http://cafe.naver.com/dasmora)〉를 사회적 자본 접근법으로 분석하여 그 특성과 시민참여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local-based cyber community)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인 〈문래·양평·영등포·당산 이야기〉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 민주주의적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다. 세부 변인별로 측정지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1) 신뢰와 2)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3) 수평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참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methodology)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로서 사례연구,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운영진 이메일 인터뷰를 시도했다. 연구결과, 분석 커뮤니티 내의 회원들의 정보 신뢰도와 운영진 신뢰 그

리고 호혜성의 규범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네트워크 참여가 활발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었다.

■ 주요어: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미드타운 스토리(문래·양평·영등포·당산 이야기), 사회적 자본, 지역 민주주의, 시민참여

1. 지구화시대, 지역 사회적 자본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이후 급격히 발전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이하 ICT)은 빠른 속도로 지구를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다. 지구화·정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학자들은 지역의 문제에 주목하여 중요한 민주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최영출·김병식·김보흠·배정환·안성호·엄태석·이정주 2006, 23). 한편에서는 지구적 의제라는 거대한 도전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규모 지역이라는 전통적 지리기반을 가진 의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구화가 초래한 상호연결망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지역 문제도 동시에 등장하면서 다층적인 지구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은 가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의미를 사회과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일정한 목적과 방법에 의하여 구획되어진 특색 있는 지구를 지칭하며, 이는 다시 역사·경제·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구분되며 크기에 따라서 나뉘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은 국가의 하부단위로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에서 동일한 경제적·역사적·문화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적 풍습을 가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구화시대에 가장 기초단위인 지역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역 민주주의가 지구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며 국가적·지구적 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이다(이기우 2005, 27-50).

지역 민주주의 실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온 분야이다. 연구자들은 주로 미국 건국 초기의 뉴잉글랜드의 타운미팅에서 그 근원을 찾고 제퍼슨(Jefferson)과 토크빌(Tocqueville)은 작은 공동체인 마을과 지역에서 형성된 시민 참여문화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주성수·정상호 2006, 54). 미국 건국 초기에 미국을 방문하고 시민참여 문화를 극찬한 토크빌(Tocqueville 2003)은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뉴잉글랜드 타운의 민주주의와 시민문화 형성에 주목했다(Diamond 1999). 이 연구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지역 또는 마을 공동체에서 민주주의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1993년 로버트 퍼트남(R. Putnam)이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Making Democracy Works*)에서 정치학에 전격적으로 소개하면서 신뢰와 협력, 호혜성의 규범, 시민성 고양과 참여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주요한 이론 프레임이 되었다(Putnam 1993, 167-173; Putnam 2000; Norris 2002). 사회적 자본이 지역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지역이나 공동체 단위의 민주주의와 협력, 시민참여와 인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과거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OECD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지역 사회적 자본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OECD 2001).

한편, 최근에는 지역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 연구가 발전하여 ICT로 형성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연구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ICT로 구축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강점에 주목한다. 초기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의 효시는 라인골드(Rheingold 1993)였다. 그는 『가상의 공동체』(*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컴퓨터 협동 네트워크인 웰(The WELL)이란 공동체를 다루고 있다. 그는 웰이 지역에 기반을 가지며 컴퓨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민주적 토론과 협력을 수행해 나가는 그 가능성에 주목하였다(Castells 2009; Turkle 1995).[1] 2000년대 이후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민주적 잠재력(democratic potential)에 주목한 실험들이 피츠버그(Pittsburgh)와 토론토(Toronto)에서 진행되었다(Kraut, Kiesler, Boneva, Cummings, Helgeson, Crawford 2002; Hampton, Wellman 2003).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인 〈문래·양평·영등포·당산 이야기(미드타운 스토리, http://cafe.naver.com/dasmora)〉를 사회적 자본 접근법으로 분석하여 특성과 민주주의적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역 기반의 사이버 커뮤니티(local-based cyber community)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밋업닷컴(meetup.com)이 활성화된 지 오래고, 한국도 여러 유형의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가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적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다. 세부 변인별로 살펴본다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와 호혜성의

1) 그러나 현재 웰은 1999년 살롱 미디어그룹에 인수되었다가 다시 웰 그룹(The Well Group, Inc.)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익현 20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규범, 그리고 수평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살펴보고, 시민참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methodology)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을 적용해 문헌연구, 사례연구(case study),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초적인 양적분석을 시도한다(King, Keohane, Verba 1994). 그리고 운영진과의 이메일 인터뷰(e-mail interview)를 실시하여 연구자가 파악하지 못한 맥락적이고 인지적인 해석에 도움을 받았다.[2)]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절은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2절은 기존 사회적 자본 연구와 ICT 기반 지역 사회적 자본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절은 분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조작화와 분석의 틀을 제시할 것이다. 4절은 사례연구를 위한 내용분석과 참여관찰을 통해 신뢰와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시민참여, 민주주의적 함의를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 5절은 연구를 요약하고 정치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당초 연구자는 면대면 심층인터뷰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사이버 커뮤니티 운영진이 이메일 인터뷰로 대체하기로 하여 2015년 9월 17일 질문지를 보내, 9월 19일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미드타운〉 운영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와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 논쟁과 지역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정의는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로 이루어진 공공재(public goods)이며 협력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Putnam 2000; Diamond 1999, 226). 최근 사회적 자본이 주목받는 것은 사회적 자본 형성과 공고화가 집단 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 또는 공동체 발전과 시민참여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선순환 효과(virtuous circle effect)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에서 사회적 자본 연구는 퍼트남(1993; 2000)의 이탈리아와 미국 사회적 자본의 쇠퇴에 관한 연구, 제이콥스(Jacobs 1961),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콜만(Coleman 1990) 등이 있다. 좀 더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토크빌(Tocqueville 2003)의 연구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사회적 자본 연구는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루이스(Lewis 2010, 9-47)는 그 성과를 종합하면서 이론적 토대에 기여한 4명의 학자들에 주목했다(Lewis 2010; 송경재 2010에서 재인용).

사회적 자본의 체계화에 기여한 첫 번째 연구자는 전 세계적인 사회적 자본의 쇠퇴를 주장한 퍼트남이다. 루이스는 퍼트남이 사회적 자본 수준(level)을 개인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이고 집단적인 산출물로서 정의하고, 이론화에 높은 공헌을 했다고 평가한다. 두 번째 연구자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연구한 부르디외(Bourdieu 1986, 248-249)이다. 루이스에 따르면, 부르디외가 자본을 물질, 문화,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 상호 취득과 인지적으로 제도화된 관계에서 성원들에게 제공되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규정했다고 제시한다. 세 번째 연구자는 콜만(Coleman 1990)이다. 그는 사회적 관계의 밀도와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의 사회연결망에 주목했다. 또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속성이 아닌 사회관계에서 배태된 것으로 간주하여 생산적인 공공재 속성을 분명히 했다고 루이스는 평가한다. 네 번째 연구자는 린(Lin 2001)이다. 린은 사회적 자본을 인지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행동지향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린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사이의 사회적 자본이 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했다.

한편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유명한 논쟁도 있다. 이 논쟁은 퍼트남-피셔 논쟁(Putnam-Fischer debate)으로 잘 알려져 있다(Quan-Haase, Wellman 2004, 114). 퍼트남은 신뢰와 호혜성 그리고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확산되면 바람직한 시민성이 사회화되고(socialization function), 이는 선순환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쇠퇴해(decline) 시민참여도 감소하며 가족모임에서부터 클럽까지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Putnam 2000; Norris 2002; Diamond 1999, 227). 이에 대해 피셔(Fischer 2001)는 두 가지 반박을 하는데 첫째, 일부 결사체 등의 시민참여 지표는 감소했지만 교통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다른 방식의 참여와 교류 지표들은 늘었다고 반박한다. 둘째, 시민참여 하락이라는 퍼트남의 주장은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데이터로 보아도 단기적인 경향이라고 비판한다(Quan-Haase, Wellman 2004, 114).

이런 논쟁의 와중에도 사회적 자본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의 사회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부정확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결과로서 민주주의 강화와 시민참여 효과는 선행 연구에서 많이 진행되었기 때

문이다.

우선 국가 차원의 거시적 연구는 초기 연구를 주도한 퍼트남(1993; 2000)의 이탈리아와 미국의 사회적 자본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이탈리아 연구에서 남부와 북부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차이를 규명하고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결과로 해석했다. 또 미국 연구에서는 결사체 감소를 우려하고 미국 사회의 시민참여 하락을 경고했다. 더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의 국가 비교연구도 진행되었다. 퍼트남(2004)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8개국 국가별 사회적 자본 연구를 지역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사회적 자본 형태와 관련한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쇠퇴경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 스톨과 로첸(Stolle, Rochon 1998)은 유럽 3개국에서 사회적 자본의 상이함을 설명했다. 이들은 유럽의 사회적 자본이 동일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장기적인 쇠퇴경향을 경고한다.

후쿠야마(Fukuyama 1999)도 사회적 자본 하락에 대한 우려를 제시한다. 그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등의 사회적 자본 역기능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을 위시로 한 주요 선진국에서 신뢰가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공공활동단체들은 감소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반대로 교육, 예술, 인권, 환경단체들은 증가하는 이중적인 현상을 발견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는 신뢰가 감소하는 중에서도 공동체의 자발적인 활동은 증가하고 있다고 퍼트남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재형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거시연구와 함께 미시 지역단위 연구도 활발하다. 아일랜드(Ireland)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 국립경제사회포럼(이하 NESF)(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2003)은 사회적 자본의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NESF는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되면 도미노와 같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연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은행(World Bank 2005)은 필리핀 지역사회에 주목하고 구성원간의 신뢰와 포용, 네트워크, 집합적 행동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것이 지역 사회적 자본 형성과 시민참여의 증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거시연구와 미시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거시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 연구(박희봉·김명환 2000; 장수찬 2002; 2007; 송경재 2010; 박희봉 2009)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비교연구(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한국과 필리핀의 비교 연구(송경재 2008b) 등 다양하다. 특히 장수찬(2002; 2007)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 중에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의 저신뢰 문제를 분석하여 시민참여 하락을 우려했다. 그리고 박희봉 외(2005)는 한중일 수도권 지역 주민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규명하여 국가 간 비교연구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의 미시연구는 더욱 활발한데 사회적 자본이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참여와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고 이것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사회적 자본 연구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발견된다. 서울특별시의 사회적 자본측정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민주주의 성과와 정책적인 함의를 추출한 조권중(2010)의 연구와 제주지역 사회적 자본의 인식정도를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증대방안을 분석하여, 기부와 자원봉사 활성화가 중요함을 규명한

진관훈(2012, 395-412)의 연구 등이 있다.

이러한 광역지역연구와 함께 작은 규모의 지역 사회적 자본 연구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이숙종 외(이숙종·최준규·유희정 2008, 1-21)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 자본의 동학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그리고 제주지역을 연구한 진관훈(2012) 역시 서귀포시의 사회적 자본이 잘 축적, 발전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방안을 지방정부에서 고민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희태(2012, 69-89)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연구에서 지역 발전과 지방정부 경쟁력 제고에 있어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연구

오프라인 기반 지역 사회적 자본 연구와 함께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ICT 발전으로 사회적 자본이 사이버만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발전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주목한 연구들이 발견된다.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연구는 2가지 연구 흐름이 존재한다. 먼저,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 가능성을 연구한 논문이다. 이들은 주로 사이버 커뮤니티 등장 초기, 내적인 동학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지역의 e-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 가능성에 주목한다. 두 번째 연구 흐름은 본격적인 사이버 커뮤니티가 정착한 이후, 지역 공동체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이버 커뮤니티의 성과와 민주주의적인 함의에 대한 분석이다.

라인골드(1993)는 웰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ICT 기반 호혜성의 규범과 협력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한 참여자의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 사연을 웹에 올리자 순식간에 의사, 간호사를 비롯해 백혈병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지와 격려의 글을 보냈고 15,000달러를 모금한 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멤버에게 전달해줬다(김익현 2015). 이는 초기이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커뮤니티에서의 자발적 참여, 신뢰와 협력, 호혜성이 작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연구는 HomeNet, Netville, BEV(Blacksburg Electronic Village; 블랙스버그 전자마을) 등의 실험적 연구가 시작되면서 활성화된다. 특히 카네기 멜론대학교의 HomeNet의 3차례에 걸친 시계열 연구는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역동성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비롯한 미디어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에 따른 지역의 변화, 연계, 그리고 공동체의 관심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크라우트 외(Kraut, Scherlis, Mukhopadhyay, Manning, Kiesler 1996)는 1990년대 이후 형성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로서 피츠버그(Pittsburgh)의 HomeNet를 분석했고 이후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사회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Kraut, Kiesler, Kiesler, Mukhopadhyay, Scherlis, Patterson 1998; Kraut et al. 2002).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연구는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연계되면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자신을 결합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낸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관한 연구는 쿠안하세와 웰만(Quan-Haase, Wellman 2002)의 연구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이 현실에서 신뢰와 협력에 긍정적이라고 연구했다. 쿠안하세와 웰만은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이 커뮤니티 내부의

사회적 자본 형성만이 아니라 시민참여,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보완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했다. 이어진 캐나다 토론토(Toronto) 외곽 지역 커뮤니티의 네트워크의 형성 연구(Hampton, Wellman 2003) 역시 ICT로 형성된 사이버 커뮤니티가 교육적인 성취와 삶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자본 축적과 지역 공동체 참여에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BEV는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을 연구한 캐롤 외(Carroll, Rosson, Kavanaugh, Dunlap, Schafer, Snook, Isenhour 2006)는 BEV에서 주민들이 연계, 정보활동을 통해 역동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지역 공동체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공통적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집단, 직장 동료, 클럽, 그리고 이웃 간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이것이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란 점에 주목한다(Sander 2005, 1-4). 카사레노(Casalegno) 역시 BEV를 분석,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조합으로 약한 연대(weak ties)가 주민 60%의 네트워킹이란 성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주민간의 연계와 협력 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Blanchard 2004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조화순과 송경재(2004) 그리고 송경재(2008a)가 서울시 중구 아파트지역의 사이버 커뮤니티 〈남산타운 21〉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지역의 〈화도사랑〉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신뢰구축과 협력, 시민참여 간의 상관성 연구를 실시했다. 〈남산타운 21〉은 현재 폐쇄되었지만 신문고 게시판은 지역민들 간의 협력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하여 사회적 자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눈 오는 날 이른 아침의 눈 쓰는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사진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쓰는 에피소드는 지역 문제에 눈을 뜨는 협력의 한 상징이 되었다. 〈화도사랑〉 역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한 정치적 토론과 지역참여, 그리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 신뢰와 협력적인 공동체 시민문화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리고 홍성구(2009, 227-270)는 춘천 뜨란채 아파트의 〈춘천뜨란채(cafe.naver.com/myhouse)〉를 분석하여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유형은 얇은 공동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의 공유, 친밀성의 교환 및 두터운 공동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 공동체적 참여 등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연구들과 달리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가 부정적인 문제도 내포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톤과 잠브라노, 무어(Tonn, Zambrano, Moore 2001)는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가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톤 등은 커뮤니티가 지역정보의 교류와 소통에는 일정한 영향이 있다고는 설명하고 있다. 즉, 커뮤니티 회원들 간의 참여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 역할이 일정한 기여는 있지만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블란차드(Blanchard 2004, 56) 역시 근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커뮤니티는 회원들 간의 관계가 오프라인과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밀도가 낮은 사회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연구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신뢰와 협력, 호혜성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형성 유무와 특성 파악에만 머무르는 한계가 발견된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분석에서도 확인되지만 특정 ICT가 잘 발전된 지역 사회적 자본 연구에만 한정된 경향이 있다. 이에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함께 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공적 참여와

협력 방식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가 단지 사회적 자본 형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지, 만약 그렇다면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민주주의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쇠퇴에 주목한다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여 어떤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 가능한지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ICT 기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주민들의 참여와 민주주의 강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론은 문헌연구와 사례분석(case study)을 통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인터뷰 등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적용했다. 본 연구는 단일 사례를 연구하기에 방법론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단일 사례연구(single case study)는 인지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일반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수집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에서는 게시판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했다. 내용분석은 변수측정을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계량연구(quantitative research) 방법론이다. 내용분석을 통해서 측정 지표의 계량화된 자료를 제시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Kerlinger 1973).

사례분석이란 질적인 연구에서도 측정지표의 조작화는 중요하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인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시민참여에 대한 영향도 등을 분석할 것이다. 세부 측정은 선행 사회적 자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지표들을 참조하여 구성했다. 2000년과 2006년에 진행된 퍼트남의 Saguro Seminar 프로젝트의 결과(http://www.hks.harvard.edu/programs/saguaro/measurement)를 반영하여 잉글하트(Inglehart)의 세계가치관조사 등에서 측정한 핵심지표를 반영하였다.

첫째, 사회적 자본 중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그리고 신뢰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tolle 2003, 19-42). 신뢰는 사회의 행위 주체, 즉 개인의 특정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의미한다(이재신·이영수 2012, 64). 따라서 신뢰는 커뮤니티 내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켜 참여지향적인 인간으로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Fukuyama 1999). 그리고 사이버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정직하게 그리고 협동적인 행동을 통해 연대감(solidarity)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은경·염보영 2012, 216-218; Newton 2009). 쿠안하세와 웰만(Quan-Haase, Wellman 2002)과 송경재(2008a) 등의 연구에 따르면, 커뮤니티에서 게시 글과 같은 정보는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신뢰가 만들어지는 기초이다. 따라서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보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연대감, 그리고 운영진과 회원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세부 지표로 제시하였다. 연구는 이를 지역 커뮤니티의 신뢰에 부합되는 지표로서 ①커뮤니티 정보 신뢰와 ②커뮤니티 내적 연대감의 형성, ③운영진 신뢰를 측정 지표로 삼았다.

둘째, 호혜성의 규범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 나누거나 교환하는 행동양식이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 개인의 이익을 명예나 지

위와 같은 가치로 보상해 주는 공동체적인 규범은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이다(Coleman 1990; 최은경·염보영 2012, 218). 따라서 이는 준법의식과 타인에 대한 봉사와 호혜적인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아울러 커뮤니티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위반자 처벌도 필요하다. 오스트롬(Ostrom 1990)이 강조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라는 공유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에서 호혜성 규범 측정은 ①회칙존재와 형성과정 ②커뮤니티 내의 기부, 봉사 등의 활동 여부, ③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유무 등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수평적 네트워크 역시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장용호 2002). 선행 네트워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조의 수평성 여부와 네트워크의 형태와 관련된 연구이다. 먼저, 네트워크 민주성은 얼마나 커뮤니티 내의 민주적인 활동이 가능한가를 측정해 위계적이지 않은 수평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형태는 울콕과 나라얀(Woolcock, Narayan 2000)과 퍼트남(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형태가 내적인 연대는 강하지만 외부와 연계되지 않는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느슨한 연계(weak ties)를 통한 수평적인 네트워크 연계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에서는 ①사이버 커뮤니티의 민주적 운영여부, ②네트워크의 유형으로서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민참여는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대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송경재 2010; 2014). 측정은 온라인 내부의 참여를 살펴보는 지표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적 참여를 살펴보는 지표로 설정했다. ①사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버 커뮤니티 내의 지역 및 정치적 토론 여부, ②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적 참여 경험의 존재 등을 분석했다.

4. 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는 〈문래·양평·영등포·당산 이야기(미드타운 스토리, http://cafe.naver.com/dasmora); 이하 미드타운〉 이다. 여기서 미드(MYYD)는 M(문래), Y(양평), Y(영등포), D(당산)의 약어이다. 이 커뮤니티는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com) 카페로 2006년 2월 11일 개설되었다. 연구에서 〈미드타운〉 커뮤니티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특별시라는 대도시 지역 커뮤니티 중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미드타운〉 커뮤니티는 2015년 3월 17일에 네이버가 지정한 '2014년 대표카페'로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이다. 둘째, 활동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는 커뮤니티의 영속성이 있다는 것으로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연계를 통해 계속 활동한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는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미드타운〉 커뮤니티는 자체 연혁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운영진(매니저, 부매니저) 교체와 주요한 발전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현재는 24대 카페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다. 2015년 6월 10일 기준으로

〈표 1〉〈미드타운〉 커뮤니티 주요 아키텍처

	게시판	내용
1	타운센터	– 회칙과 공지사항, 운영진에게 건의할 사항, 글 삭제 문의와 가입인사 –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지
2	〈미드타운〉 일반	– 4개 지역별 게시판 – 일상사 관련한 다양한 토론 및 정보공유
3	테마	– 지역의 다양한 관심사에 따른 하위 게시판으로 구성 – 벼룩시장, 나눔 후원, 임신육아, 교육, 요리생활, 여행문화, 경제사회정치, 지역이슈
4	Friend Cafe	– 지역 내의 예술, 문화, 공동체 커뮤니티 정보 공유 – 마켓, 문래 예술 공방, 영등포 도시농업 네트워크, 문래 부모협동 어린이집, 마을공동체 미담 등
5	Link	– 지역 관공서, 아파트단지 등의 관련 커뮤니티와 연계
6	타운관리소	– 미사용 게시판, 가입인사, 구인/구직 등의 기타 정보 공유

* 자료: 〈미드타운〉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5월 동안의 활동 상황을 조사해 보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앱 구동횟수는 1,285,788회이며 같은 기간 동안 게시 글 수는 1,846건, 댓글(덧글) 수는 16,283건에 달한다. 특히 네이버 포털 검색에서 검색된 횟수는 32,940회에 달한다. 한 달 동안 신규 회원 가입만 445명이며, 2015년 6월 10일 현재 회원 수는 16,284명, 전체 게시 글도 120,502개에 달한다.

2) 신뢰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정보 신뢰도는 이후 활동에서 해당 커뮤니티가 믿을만한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사이버 커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니티의 신뢰변인에서 빠질 수 없다(송경재 2008a). 측정은 커뮤니티 내의 정보 활용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이 잘 되는지를 파악하였다. 정보신뢰를 파악하기 위해 〈미드타운〉의 주요 4개의 동별 게시판 중에서 문래동 게시판의 5월 게시 글 57개를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주제별로 구분했다.[3)]

내용 분석 결과, 예상대로 생활정보 비중이 가장 높은 34건(59.65%)이다. 그 다음은 기타 9건(15.79%), 교육정보 7건(12.28%)으로 집계되었다. 평균 조회 수는 지역정보가 911.67회로 높았고, 분실물정보도 454회

〈표 2〉〈미드타운〉 문래동 게시판 게시 글 내용분석

	게시 글 주요 내용	글 수	비율	평균 조회 수	평균 댓글	평균 좋아요
1	생활정보 – 아파트 관련 정보 – 지역 내 편의시설, 병원, 식당 등 문의	34	59.65%	432.32	6.44	0.29
2	지역 소식 – 지역과 관련된 정보	3	5.26%	911.67	4.67	0.33
3	교육 정보 – 육아, 교육과 관련된 정보	7	12.28%	321.0	5.86	0.29
4	분실물 정보	4	7.02%	454.0	0.25	0.50
5	기타	9	15.79%	317.11	4.11	0.11

* 자료: 〈미드타운〉 문래동 게시판 5월 게시 글 57개 대상 분석

3) 연구자가 4개 지역별 게시판에서 문래동을 선택한 이유는 4개 지역 게시판이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가장 게시 글이 많은 상위의 게시판을 선택해 분석했다.

를 기록했다. 게시 글의 세부적인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게시 글에 대한 회원 신뢰도가 더욱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1,322회의 조회 수를 기록한 2015년 5월 28일 172956번 게시 글에서 문래중학교 근처 소란에 대해 궁금한 회원의 글에 대한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했다. 5월 20일 게시된 전세 금액에 맞는 아파트를 묻는 게시 글은 조회 수가 1,772회이고 11건의 댓글이 게시되었다(게시 글 172458 참조).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한 회원이 감사의 글을 다시 게시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견되는 등 전반적인 정보 신뢰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 내적 연대감을 파악하기 위해 '미드 사랑방' 게시판을 분석했다. 미드 사랑방을 내적 연대감 측정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4개 동을 포괄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정보와 회원들 간의 주변 일상사 게시판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주로 지역정보를 공유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만남과 생활정보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내적인 정보의 소통과 신뢰성을 파악하는 내적인 연대감을 확인하는데 용이하다. 분석결과 상당수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이사 올 주민들이 사전에 어린이 유치원이나 학원을 추천받기도 하고, 서로 상호부조를 통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2015년 6월 2일 한 회원은 치과치료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글을 올렸고(게시 글 173390) 1,872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댓글도 10건에 달하며 다수 회원들이 추천하기도 하는 등 현명한 소비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4)]

---

4) 하지만 이러한 내적인 연대성 강화를 위한 소비행위의 문제는 자칫 영리적인 목적으로 인해 커뮤니티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운영진은 업체명의 블라인드 처리 및 홍보 및 영업 관련 게시 글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셋째, 운영진의 신뢰 평가는 회원들의 평가를 일괄적으로 체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운영진과 관련된 건의와 신고 게시판 평가, 운영진 결정 과정에 관한 회원들의 반응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운영진 인터뷰로 보완했다. 이 공간에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게시 글이나 홍보성 글 신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운영진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한다. 한 회원이 2015년 4월 28일 자신의 게시 글이 이유 없이 삭제되었다는 불만을 신고하자(게시 글 170939) 당일과 다음날에 운영진에서 문제를 파악해서 답변을 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게시판 내용을 검색한 결과, 회원과 운영진의 게시 글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글이 다수 발견되는 등 회원들이 운영진의 노고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으며 운영진 역시 회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처리를 통해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5] 아울러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삭제 문의 게시판이 비밀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게시판은 신고자와 운영진만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세심한 배려장치도 해두었다. 또 다른 운영진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신임 운영진 결정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이다. 게시 글 번호 158769는 새로운 운영진 선출에 관한 게시 글이다. 이 글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회원들의 추천과 자천으로 운영진이 선출되었음을 알리자 41명의 댓글이 게시되어 새로운 운영진을 축하해 주고 앞으로의 수고를 바라는 글이 게시되었다.

한편 운영진 인터뷰에서도 활발한 정보소통과 응답을 통한 친밀감

5) 실제 게시 글 170047번을 보면, 2015년 4월 16일 한 회원이 광고 글이 자꾸 배달된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감사의 글을 같이 게시하고 있으며 운영진 역시 17일에 확인 답변의 글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의 상승도 낮은 차원의 신뢰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운영진은 1년마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맡고, 이웃주민 또는 아는 사람들이 운영진으로 활동한다(운영진 이메일 인터뷰 2015년 9월 19일). 물론 운영진 신뢰감을 게시판 분석에서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회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영진이 원활하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뢰감은 다른 지역 및 테마 게시판 등에서도 발견된다.

이처럼 커뮤니티 내에서의 정보 신뢰가 높고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것은 상호작용성을 가진 사이버 커뮤니티의 특성일 수도 있다. 게시 글 중에서 지역에 이사온 회원이나 외지인들이 지역현안에 관한 궁금증, 질문, 상가나 시장위치 등을 질문하는데 여기에 성실한 답변이 많다. 처음 커뮤니티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모든 것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뮤니티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아울러 운영하는 운영진이 큰 과오가 없다면 잘 운영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게시 글에 잘 반영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정보 신뢰와 연대감의 강화에 〈미드타운〉이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ander 2005; Carroll et al. 2006; 송경재 2008a).

3) 호혜성의 규범

다음으로 분석할 사회적 자본 지표는 호혜성의 규범이다. 먼저 커뮤니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회칙은 〈미드타운〉에서는 잘 정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게시판의 상단에 회칙이 게시되어 있고, 최소한의 규칙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커뮤니티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메뉴의 '타운센터'에 별도의 회칙을 위한 게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판을 운영하고 있다. 162653번 게시 글을 보면, 운영진은 2015년 2월 현재 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각자의 게시판 관리 책임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미드타운〉의 모토는 '〈미드타운〉카페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로 두고 세부 규칙을 공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게시하고 있으며 회칙은 필요시마다 운영진들이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 커뮤니티 내에서의 기부, 봉사활동은 다양하게 발견된다. 〈미드타운〉은 별도의 기부와 봉사 관련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영진은 회원들의 자발성을 커뮤니티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커뮤니티가 자발적인 조직이므로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운영진은 이를 커뮤니티에서 잘 운영되게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운영진 이메일 인터뷰 2015년 9월 19일). 이러한 방식은 커뮤니티 운영이 상향식이고 자원봉사 활동의 자발성을 확인해 준다. 커뮤니티 하위 메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나눔·후원·품앗이' 게시판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의 주요 내용은 자선 바자회, 나눔 활동, 후원금 또는 물품 걷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드타운〉 내의 주요한 기부, 봉사활동은 다음 〈표 3〉과 같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인 관심사에 대한 지원과 기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미혼모 돕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초기 이 운동을 시작한 회원은 〈평택미혼모센터〉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한다. 과거 게시판 글을 분석한 결과, 댓글 수만도 120개이며 거의 대부분이 같이 참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문의, 물품지원 의사 표현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 활동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미드타운〉 미혼모센터후원 봉사단체(미미봉)'를 구성해 2015년 3월

〈표 3〉〈미드타운〉 내 주요 기부, 봉사활동

	게시판 주제	내용
1	벼룩시장 운영 및 수익금 후원	– 미나길(미드네 나눔길) 벼룩시장 운영 – 수익금은 동방복지미혼모센터, 선유아동센터 등에 지원[6] –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벼룩시장의 주민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활동과 연계
2	나눔·후원·품앗이	– 미혼모 지원 봉사단체 미미봉 운영(6기 운영 중) – 반찬 품앗이, 보육 품앗이 등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공간운영
3	드림	– 중고물품 교환 및 드림 게시판 운영 – 주로 아동용 도서와 의류 등이 활발하게 공유 – 2013년 4월 7일부터 약 750여 개의 물품이 공유

* 자료: 〈미드타운〉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27일 6기까지의 자원봉사단체로 발전했다(게시 글 168409 참조).

또 다른 사례는 2015년 4월에 한 회원이 나눔 활동과 관련한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미드타운〉 회원들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게시 글에서도 확인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쌀과 식료품 등을 후원했다고 한다. 그 뒤에 이 회원은 TV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보내준 기부물품이 잘 전달되었다는 소식과 전달 사진 등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했다(게시 글 169421, 169804 참조).

셋째, 회칙에서도 발견되지만 제3조 카페활동의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1. 모든 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활동, 2. 공인을 포함한 타인, 단체에 대한 욕설, 비난, 비방 등 명예훼손이 되는 글,

6) 예를 들면, 2015년 5월 미나길 정산은 수익금 중 710,200원 중 500,000원은 두 단체에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다음달 준비비와 체험수업과 경제프로그램 체험 지원금 등으로 활용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선정적인 글 등 거부감을 준다고 판단되는 글, 4. 스팸, 글 도배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로서 제4조 게시물 삭제 및 카페이용 제한을 두어 규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진은 해당회원의 카페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활동정지, 회원등급 강등, 강제탈퇴, 재가입불가 강퇴 등) 위반자에 대한 명문화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별도 '운영시행세칙'을 만들어 상업성을 배재한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게시판을 살펴보면 과거 마켓운영과 관련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음이 발견된다. 커뮤니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진의 단호한 처리가 몇 차례 진행되었다고 한다. 2013년 11월 8일 131633번 게시 글에서 잘 나타나는데, 과거에 하나의 뿌리였던 〈미드타운〉과 〈미드마켓〉은 현재 별도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데, 〈미드타운〉은 순수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이며, 〈미드마켓〉은 자원 재활용, 중고물 교환, 홍보 등의 상업성 목적의 게시 글 등 금전적 거래가 있는 공간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운영진들은 친분은 있지만 별도의 커뮤니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원들이 이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약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게시 글 156964, 2014년 10월 23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타운〉은 회칙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정보공유와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체 신고센터의 운영이나 건의 사항 등을 통해서 커뮤니티 유지를 위한 탈퇴와 게시 글 삭제 등의 조치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수평적 네트워크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관한 지표인 민주적인 운영 여부 평가는 회원들과 운영진과의 활발한 소통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민주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진 선출과정의 투명성일 것이다. 현재 〈미드타운〉 운영진은 대부분 자천타천에 의해 선출된다. 사이버 커뮤니티인 관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오프라인(벼룩시장,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진이 교체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민주적 선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운영진이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무임 봉사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영진을 추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미드타운〉은 운영진 교체는 있지만 24대 운영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영진의 공개성이 잘 지켜진다는 점이다. 선출과정에서 일단 여타 단체나 조직과 달리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운영진으로 선출되면 카페소개 연혁에 운영진으로 등록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디를 통해서 개인 블로그(blog)가 있을 경우 자동 연계되는 등 운영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책임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운영진 이메일 인터뷰 2015년 9월 19일). 비록 민주적인 선출은 아니지만 일단 운영진으로 선출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커뮤니티 업무를 수행하는 암묵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원과 운영진과의 소통은 얼마나 활발하고 수평적인 관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운영진에게 건의 신고' 게시판을 보면 소통과 토론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회원들이 문의사항이나 건의가 있을 경우 게시 글이 공지되고 여기에 대한 회원들과 운영진의 토론이 진행된다. 대부분은 회원들이 회칙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일부 의견들은 회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운영진이 인정을 하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 이에 대한 수정도 진행된다.

둘째, 네트워크 유형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특징으로 논의되는 결속형과 연계형 사회적 자본(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가 계층·계급·종교·인종·지역 등 다양한 인자들로 구성되므로 각 집단은 내적으로 결속하거나, 외적으로 타 집단과 연계형 사회적 자본 형성이 가능하다. 분석결과, 〈미드타운〉은 내적인 연대성이 강하다. 이는 커뮤니티 내적 연대감 분석에서도 확인되지만 '사랑방' 게시판을 비롯한 다른 게시판에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연고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정보공유와 도움, 호혜성 등이 강해질 개연성이 크다. 또 〈미드타운〉은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티와 연계하고 있다. 먼저 '지역링크'는 영등포구청, 영등포아트홀, 영등포 뉴스를 비롯해 7개이며, 〈미드타운〉 내 아파트 사이버 커뮤니티와 연계도 문래 6가 현대 1차 등을 비롯해 13개이다. 이는 〈미드타운〉이 지역 내의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티와 연계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소규모 단지와 대규모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드타운〉이 타 사이버 커뮤니티와 네트워킹되었다고 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가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특성은 분명히 발견되지만 타 집단과 활발한 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시너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도 지적할 것이지만 관계된 사이버 커뮤니티 간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심층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5) 시민참여

첫째, 측정할 분야는 사이버 커뮤니티 내의 지역 및 정치적 토론 여부이다. 〈미드타운〉은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이면서 다양한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다. 실제 〈미드타운〉의 많은 게시판 중에서 2개가 참여와 연관되어 있다. '경제·사회·정치' 게시판과 '지역이슈' 게시판이다. 먼저, '경제·사회·정치' 게시판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1,770건의 게시 글이 올려졌다. 주요 이슈로는 최근 세월호 관련 게시 글만 77건에 달하는 등 지역 내에서의 활발한 사이버 정치 토론방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1주년 때에도 메인 화면에 추모 그림을 게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커뮤니티의 사회참여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운영진은 직접적으로 커뮤니티에서 모임을 주도하거나 행동하지는 않는다. 직접적인 모임이나 서명운동 등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숨진 영혼을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메인에 사진을 게시했다.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 (운영진 이메일 인터뷰 2015년 9월 19일)

세월호 관련 글 중에서 최근 1,000회 이상의 조회를 기록한 5건 요약은 〈표 4〉와 같다. 조회 수 1,000회 이상의 상위 5개의 게시 글 내용은 대부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연과 정부의 대응 논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댓글 역시 국민적인 비극인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반성과 대책마련 등을 다루고 있다.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라 〈미드타운〉에서는 교육정책이나 환경 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표 4〉 '세월호' 검색 중 조회 수 1,000회 이상 상위 게시 글 5건 요약

글 번호	제목	댓글	게시일	조회 수
172706	그냥… 자꾸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올려봐요.	14	2015.05.24.	1297
170043	[펌] 오늘 뽐뿌에 동생 아이디로 접속해서 누나가 남긴	15	2015.04.16.	1165
169058	세월호 보상금-8억 2,000만~11억 4,000 ―형평성에 대하여… 긴 글 꼭 좀 읽어 주세요.	33	2015.04.04.	1165
152317	세월호 이야기가 지겨운 분들에게	35	2014.08.14.	1273
151813	대한민국 국민은 뭐든 셀프~	23	2014.08.07.	1174

* 자료: 〈미드타운〉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제, 지역개발 이슈와 관련한 다양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이슈' 게시판에서는 지역 문제와 관련된 게시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하철 역 개통이나 개발 관련 게시 글이 상당수이며 지역 문제에 대한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문제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을 공동으로 모색한다면 그것은 지역사회 발전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미국의 지역사회 결사체에 주목한 토크빌(1993)이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에서의 단체와 결사체들이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의 교육장 역할을 수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적인 참여이다. 선행 사이버 커뮤니티 연구자들은 가상의 영역인 사이버 커뮤니티가

현실 공간에서도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다(Rheingold 1993; Castells 2009).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되지만 사이버 커뮤니티는 현실 공간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Kraut et al. 1996; 1998; 2002; 미리 2001; 장용호 2002; 송경재 2008a). 특히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는 지역이라는 실체성을 가진 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이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오프라인 정모라는 것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장용호 2002; 송경재 2008a).

〈미드타운〉 역시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상호작용적으로 나타난다. 〈미드타운〉에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정기적인 정기모임(정모)이 개최되고 있으며 각종 모임과 스터디클럽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에도 '오프모임·번개' 게시판에서는 〈미드타운〉 정모, 무료 사진교실, 영어회화와 중국어회화 스터디 모임 등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앞서의 분석에서도 지적했지만 미드네 벼룩시장이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회원들 간의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나눔과 후원을 위한 활동 역시 지역에 기반을 둔 사이버 커뮤니티가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과 결합하여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적인 참여의 결과는 다시 선순환하여 사이버 커뮤니티 내의 활동을 고무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과 연계되어 중요하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지역성과 오프라인에서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보장은 내적인 신뢰와 연대의식을 공고화해 줄 수 있다. 퍼트남(2000)이 사이버 공간에서 우려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나오는 익명성(anonymity)의 문제점과 선스타인(Sunstein 2009)이 지적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론장이 분극화(polarization)될 것이란 예측은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에서는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요컨대,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경우 연대의식의 형성이 단순히 인터넷 네트워크만이 아닌 면대면 접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상호작용성으로 더욱 빨리 신뢰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5. 요약 및 토론

현대인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 속에는 개인주의화된 영역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치와 다른 새로운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주변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지역 문제에 주목한 이 연구는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를 연구하여 내적인 사회적 자본 형태와 지역 민주주의로서의 가능성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미드타운(문래·양평·영등포·당산 이야기)〉을 사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미드타운〉은 지역 정보공유와 회원들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따라서 내적인 연대감과 운영진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 내 정보에 대한 공유와 연계가 활발하다. 아울러 이를 조정하는 운영진들이 공개되어 회원들의 신뢰감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호혜성의 규범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호혜성은 타인에 대한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이 사이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봉사단체와 기부, 바자회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 지역의 소외된 이웃

들에 대한 사업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내부의 회칙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실 〈미드타운〉 내에서는 일부 과거 〈미드마켓〉과 관련한 혼란으로 영리적인 게시 글이 업로드되었지만 이를 운영진들이 잘 조정하고 있었다.

셋째, 수평적 네트워크 평가에서는 사이버 커뮤니티 운영진은 비록 알음알음 또는 활발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운영진을 공개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네트워크의 유형은 내적인 결속성이 강한 특징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넷째, 이상의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인 〈미드타운〉의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시민참여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적으로는 사회 문제와 지역 문제에 대한 게시판에서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연계 사업을 통해서 참여의 효능감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점차 오프라인의 봉사활동이나 벼룩시장 등에서 활동을 하며 다시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퍼트남(Putnam 1993)이 강조한 북부 이탈리아 지역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선순환 효과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사회적 자본 형성의 토대가 되고 시민 참여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향후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는 취미형이나 정보교류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사이버 커뮤니티에 비해 지역적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형성이 유리할 수 있다. 〈미드타운〉과 같은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는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집합재(collective goods)가 형성됨으로써 신뢰와 협력이 다른 커뮤니티보다 강하게 표출된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이 공동체 속에서 사회화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토론과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적 덕성의 훈련장이 되고 더욱 높은 형태의 시민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다. 실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도 〈미드타운〉에서 많은 회원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직접 단식농성장에 방문한 뒤 후기를 게시하는 등의 정보공유를 통한 참여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미드타운〉에서 확인된 강력한 호혜성의 규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 동안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 호혜성의 규범과 관련한 지표와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지역 사회적 자본 연구가 설문조사 등의 계량적인 접근이 많았기 때문이다(OECD 2001; 서진완·박희봉 2003; 박희봉 2009; 송경재 2010). 그러다 보니 지역차원의 호혜성의 규범보다는 광역 또는 국가 차원만을 분석한 한계가 발견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지는 강점의 하나가 바로 지역 정보공유와 작은 단위에서의 호혜성의 규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벼룩시장의 운영비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나, 직접 봉사단을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른 사이버 커뮤니티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지역에서 호혜성의 규범 특히 나눔문화가 발전한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와 기부, 나눔문화의 확대는 시민의식을 성숙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성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송경재 2010). 호혜성의 규범을 잘 확립하고 있는 〈미드타운〉의 사례는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성공적 운영의 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미드타운〉의 사회적 자본 유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울콕과 나라얀(Woolcock, Narayan 2000) 그리고 이동원과 정갑영 외(2010)의 연구에서 확인되지만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미드타운〉은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기 때문에 내적인 연대성은 강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사이버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속성 때문에 정부 관공서, 지역 단체 간의 네트워킹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점은 전통적 오프라인 공동체에서 쉽게 형성되기 힘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학자들(예를 들면, Putnam(2000), Tonn, Zambrano and Moore(2001) 등)은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집단의 사회적 자본이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힘들다고까지 보았다. 이 차이는 선행 사회적 자본 연구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사회적 자본 유형화에서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인 연대는 분명한 지표로 확인되지만 사이버 커뮤니티가 다른 웹 페이지 또는 사이버 커뮤니티와 연계되었다고 해서 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가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는 〈미드타운〉이란 한 사이버 커뮤니티만의 분석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계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여부는 타 커뮤니티와의 관계까지 포함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연구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그 이유는 〈미드타운〉 사례의 특수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이버 커뮤니티가 결성되고 해체된다. 하지만 2006년부터 근 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사이버 커뮤니티는 많지 않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이버 커뮤니티로 생존한 것이다. 고로 다른 실패한 사이버 커뮤니티와의 비교연구가 진행되어야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화는 이에 대한 보완연구가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사이버 커뮤니티가 가지는 지역 민주주의의 의미를 파악하고 지역민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민주주의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익현. 2015. “어느 가상공동체가 30년전 쏘아올린 작은 공.” ZDNet(2015/04/08)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w.asp?artice_id=20150408180606&type=det&re=(검색일: 2015/05/30).

미리, 크리스토퍼. 2001. “사이버 공간과 불리한 공동체: 집합행동 도구로서의 인터넷.” 마크 스미스, 피터 콜록 편. 『사이버 공간과 공동체』. 조동기 역. 서울: 나남출판. 523-553.

박희봉. 2009.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서울: 조명문화사.

박희봉·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4호. 219-237.

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한

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4호. 547-575.
서진완·박희봉. 2003. “인터넷활용과 사회자본—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1호. 27-49.
송경재. 2014. “네트워크화된 소셜 시티즌과 사회적 자본.”『아태연구』 21(4). 241-272.
_____. 2010.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2: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동학의 변화.”『국가전략』 제16권 제4호. 125-150.
_____. 2008a. “e-사회적 자본으로 분석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능성과 한계: 남양주 〈화도사랑〉 사례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2호. 271-301.
_____. 2008b. “시민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자본: 한국과 필리핀을 중심으로.”『아태연구』 15(2). 141-162.
이기우. 2005. “유럽지방자치헌장과 지방자치의 세계화.”『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3호. 27-50.
이동원·정갑영 외 지음. 2010.『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숙종·최준규·유희정. 2008. “종로구의 사회자본 연구: 사회적 특성과 행위변수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1-21.
이재신·이영수. 2012. “사회자본과 SNS.” 제38대 한국언론학회 제1차 기획연구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세미나. 61-80.
이희태. 2012.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16권 3호. 69-89.
장수찬. 2007. “한국 사회의 신뢰수준의 하락과 그 원인: 국가 간 비교 분석적 관점에서.”『세계지역연구논총』 25권 3호. 125-156.
_____.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한국정치학회보』 36권 1호. 87-112.
장용호. 2002.『사이버공동체 형성의 역동적 모형』. 서울: 집문당.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권중. 2010.『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 증대방안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화순·송경재. 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정책참여: 단일이슈 네트운동의 정책결정과정.”『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5호. 197-214.

주성수·정상호 편저. 2006.『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진관훈. 2012.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증대 방안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16권 3호. 395-412.

최영출·김병식·김보흠·배정환·안성호·엄태석·이정주. 2006.『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 거버넌스』. 서울: 대영문화사.

최은경·염보영. 2012.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자본.”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수용자 연구회 엮음.『소셜 미디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8-239.

홍성구. 2009.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아파트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언론과학연구』 제9권 1호.

Blanchard, Anita. 2004. “The Effects of Dispersed Virtual Communities on Face-to-Face Social Capital.” In Marleen Huysman and Volker Wulf, eds. *Social Cap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Massachusetts: The MIT Press.

Bourdieu, P. 1986.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of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Carroll, John, Mary Rosson, Andrea Kavanaugh, Daniel Dunlap, Wendy Schafer, Jason Snook, and Philip Isenhour. 2006. “Social and Civic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Network.” In R. Kraut, M. Brynin & S. Kiesler, eds. *Computer, Phones, and The Internet: Domesticicating Information Techn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68-181.

Castells, Manuel. 2009.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ume I. Wiley-Blackwell.

Coleman, James.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Fischer, C. S. 2001. "Bowling alone: What's the Score?"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7-21.

Fukuyama, Francis. 1999. *The Great Disruption*. New York: Free Press.

Hampton, Keith, and Barry Wellman. 2003. "Neighboring in Netville: How the Internet Supports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in a Wired Suburb." *City & Community* 2(4). 277-311.

Jacobs, Jane.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Kerlinger, F. 1973.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King, Gary, Robert Keohane, &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raut, R., W. Scherlis, T. Mukhopadhyay, J. Manning, & S. Kiesler. 1996. "The HomeNet field trial of residential Internet services." *Communications of the ACM*. 39. 55-63.

Kraut, Robert, R. Kiesler, Sara Kiesler, Tridas Mukhopadhyay, William Scherlis, and Michael Patterson. 1998. "Social Impact of the Internet. What does it mean?" *Communications of the ACM*. 41(12). 21-22.

Kraut, Robert, Sara Kiesler, Bonka Boneva, Jonathon Cummings, Vicki Helgeson, and Anne Crawford.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Issue. 58(1). 49-74.

Lewis, Jenny. 2010. *Connecting and Cooperating: Social Capital and Public Policy*. Sydney: UNSW Press.

Lin, Nan. 2001. *Social Capital*.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2003. *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Forum Report*, No.28. Dublin Ireland: Government Publications.

Newton, K. 200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R. Dalton & Klingem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OECD.

Ostrom, Elino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_____.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Quan-Haase, and Berry Wellman. 2004. "How does the Internet Affect Social Capital?" In Marleen Huysman and Volker Wulf, eds. *Social Cap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Rheingold, Howard. 1993.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Sander, Thomas. 2005. "E-associations? Using Technology to Connect Citizens: The Case of Meetup.com." Paper Prepared for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 2005.

Stolle, Dietlind. 2003. “The Sources of Social Capital.” In Marc Hooghe and Dietlind Stolle, eds.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42.

Stolle, Dietlind, and Thomas Rochon.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47-65.

Sunstein, Cass. 2009. *Republic.com 2.0*.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Indianapolis: Hackett.

Tonn, B. E., P. Zambrano, and S. Moore. 2001. “Community networks or networked community?”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19. 201-212.

Turkle, Sherry.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Woolcock, M., & D. Narayan.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 (2). 225-249.

World Bank. 2005. CDD(Community Driven Development) and Social Capital Impact: Designing a Baseline Survey in the Philippines. World Bank Report No: #32405-PH.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8652(검색일: 2015/06/14).

www.kdemo.or.kr KO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영문초록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of Local-based Cyber Community

Song, Kyong Jae
Kyung Hee University

Around the world, social media services such as Twitter, Facebook, Google Plus, and blogs are actively used. It has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cyber communities based on local areas.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for social capital and grassroots democracy of <Munrae, Yangpyeong, Yeongdeungpo, Dangsan Story>, Korea's regional cyber community. The measurement index for each variable is as follows: 1) trust and 2) the norm of reciprocity, which are elements of social capital; 3) formation process of horizontal network; its effects on civic participation. For analysis, the following methodology was used: a case study as a qualitative research; participatory observation; email interview with the administrator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members have strong trust in the community information and administrators. Also, the norm of reciprocity is at a very high level. Also, the online and offline participation in the network serves as social capital on the basis of active grassroots.

■ **Key Words:** local-based cyber community, MYYD town story(Munrae, Yangpyeong, Yeongdeungpo, Dangsan Story), social capital, local democracy, civil participation

투고: 2015.9.30 심사: 2015.10.16 확정: 2015.11.16